

2008 함께라서 좋아요

(1) 국악가족 이대휴씨네

“올해는 가족음악회 꼭 열거예요”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반자는 힘겨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다.



판소리, 타악, 해금을 전공한 이대휴씨 가족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가족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내 김미숙씨 판소리 무대 복귀... 딸 소리양은 해금 전공

부모님이 워낙 잘 아시는 분야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죠. 소리양은 요즘 유행하는 퓨전 국악도 좋지만 '전통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

개인 발표회를 열었던 이 씨는 올해 국립국악단 활동 뿐 아니라 회장을 맡고 있는 국악협회 회원 개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올해 고 3이 되는 소리 양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임방울국악제 등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협연 테스트도 받아볼 예정이다.

청와대 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3일 신년 인사회 초청... 실내악 편성 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08년 신년 인사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국악가요 '배 띄워라'와 흥겹고 경쾌한 실내악곡 '아름다운 인생 II'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호남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 순회전시회

호남의 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에서 열린다.

전주전시회는 6~1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전시회는 16~20일 센트럴시티 1층에서, 여수전시회는 23~27일 여수시민회관 전시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광주극장 '2007 마지막 프리포즈' 미드나잇 파티

눈 내리는 겨울밤 영화사랑

마음까지 열게 만드는 폭설과 한파도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만큼은 이기지 못했다.

구급 31일 밤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날 파티는 영화를 벗삼아 혼자 지내는 영화 박물관 아간경비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애프터 미드나잇' 관람을 시작으로 영화음악과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영화 제목을 알아맞히는 '영퀴왕(영화퀴즈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평소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스크린에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영화 '화려한 휴가'를 알아맞췄다.

이후 자정까지 이어진 와인파티에서는 평소 광주극장에서 영화관람을 즐겼던 관객들이 준비해온 간식과 와인을 나누며 한해 성영했던 영화나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회사원 김민수(33·광주시 북구 일곡동)는 "여자 친구를 따라 처음 참여해봤는데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줄



구급 31일 광주극장에서 열린 '2007 마지막 프리포즈'에서 영화 퀴즈를 풀고 있는 관객들을 모습.

(광주극장 제공)

영화 퀴즈대회·와인파티 등 한밤 열기 가득

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뿌듯했다"면서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관객들이 광주극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올해로 50번째 맞는 '마지막 프리포즈'는 관객들이 한 해 동안 챙겨보지 못한 영화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45억 박수근 ‘빨래터’ 진위 논란”

미술 전문지 '아트레이드' 의혹 제기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거래된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크기 72x37cm·사진)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미술 전문지인 '아트레이드'는 1월1일자 장간호를 통해 1995년 시공사가 편낸 '박수근 작품집'에 실린 '빨래터'(111.5x50.5cm)와 지난해 서울옥션 경매를 통해 낙찰된 '빨래터'를 비교, 서울옥션 경매 작품의 위와 의혹을 제기했다.

아트레이드의 류병화 편집주간은 "기존 박수근 작품은 인물의 옷 색깔이 갈색 톤으로 처리된 배경을 거스르지 않는데, 서울옥션 경매 '빨래터'는 각각의 색이 두드러지고 물줄기 또한 깊이감 없이 어설픈 표현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당시 경매 도록에는 참고 작품으로 박수근의 54년작 '빨래터' 유화 2점과 54년으로 잘못 표기된 34년작 드로잉 1점이 함께 실렸다"며 "정작 경매에 나온



'빨래터'와 유사한 작품인 시공사의 도록에 실린 '빨래터'는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옥션은 "박수근 화백으로부터 직접 작품을 받아 50여년간 간직해온 미국의 소장가로부터 나온 진품이다"면서 "전문 감정위원의 감정과 유족의 감정도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빨래터'는 국내 컬렉터에게 낙찰됐는데, 필요하다면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추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명예를 훼손한 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t features a banner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theater listings including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컬럼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무등극장', and '제일시네마'. Each listing includes showtimes and movie titles like '내사랑', '아메리칸 갱스터', '황금나침반', and '나는 전설이다'.